

# 2021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문화예술과 커피도시 부산의 연결 가능성**

**주제발표 1 | 커피와 공간, 문화적 가능성에 대하여**  
**이지훈**(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장, 필로아트랩 대표)

**주제발표 2 | 부산의 작은 역사 : 커피**  
**김만석**(독립연구자)

**사례발표 및 토론 | 윤성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일록**(로컬콘텐츠기획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전주연**(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좌장 |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2021.12.07 (화) 15:00 무명일기(부산광역시 영도구)**

**LIVE 부산문화재단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현장참여신청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프로그램 참여마당-신청게시판



## 2021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 ‘문화예술과 커피도시 부산의 연결 가능성’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7일(화) 15:00 무명일기
- 주최 및 주관 :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정책연구센터

#### ○ 세부 일정

구분	세부 내용	비고
15:00-15:05	[개회인사]	진행: 김수정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5:05-15:25	[주제발표 1] ‘커피와 공간, 문화적 가능성에 대하여’ - 이지훈(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장, 필로아트랩 대표)	
15:25-15:45	[주제발표 2] ‘부산의 작은 역사 : 커피’ - 김만석(독립연구자)	
15:45-15:50	휴식	
15:50-16:50	[종합 토론] 토론자: - 전주연(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 이일록(로컬콘텐츠기획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 윤성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좌장: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6:55-17:00	[폐회]	

**[주제발표1]**

**‘커피와 공간, 문화적 가능성에 대하여’**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정책위원장)

[개요]

- 주제: 부산 커피숍과 문화예술의 동반성장 가능성
- 키워드: 지역 문화 거점 (지역성, 장소성) / 산업 / 문화예술
- 정책 배경
  - 부산에서 커피숍처럼 [ 장소성 + 문화 + 산업 ]이 결합하는 자발적, 자생적 트렌드는 드물다.
  - ‘비공식적인 문화 씬(scene)’을 활성화하는 공간  
⇒ 창조도시 + 시민문화거점 (=‘로컬-택트’)
- 정책
  - 커피숍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연결
  - 커피숍 ‘전시·공연·강연’ 지원

지난 7월, 부산시가 지역 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을 커피산업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커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4년간 180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육성을 통해 관광거점화를 계획한다. (커피를 좋아하는 발제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화정책의 시각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피산업 정책에 문화예술 정책이 더해지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커피>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실제 부산에서 커피숍처럼 [ 장소성 + 문화 + 산업 ]이 결합하는 자발적, 자생적 트렌드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먼저 커피숍의 문화적 가능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안한다. 하나는 도시 산업(경제)과 연관된, 이른바 창조도시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지역 시민의 문화 창조-향유의 관점이다. 먼저 첫 번째 관점부터 생각해보자.



## • 창조도시의 관점

문화의 활력과 도시의 성공은 함께 간다. 과거에는 도시의 성공(경제, 산업)이 문화의 융성을 불러왔지만, 오늘날에는 문화의 융성이 도시의 성공을 불러올 수 있다. 요컨대 「문화의 활력과 도시의 성공은 ‘공생’, ‘공진화’」한다. 문화와 산업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말하자면 문화정책을 ‘관계 횡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이스트런던, 2010년대 이후 베를린, 몬트리올, 오스틴(텍사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도시들에서는 문화가 산업을 이끌고, 인재를 유인하며, 투자를 이끌어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비공식적인 문화 씬〉(informal cultural scenes)이었다.

〈세계도시문화보고서〉가 기존의 문화정책 보고서들과 달리 ‘비공식적’ 문화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공식적 영역과 나란히, 대등한 평가영역으로 다루는 이유다(2012년 런던을 기반으로 설립된 〈세계도시문화포럼〉 WCCF: World Cities Culture Forum은 4년마다 도시별 문화정책을 분석하는 〈세계도시문화보고서〉 WCCR: World Cities Culture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 문화영역’은 ‘관 주도’로 계획, 설립된 콘서트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말하고, ‘비공식 문화영역’은 카페, 식당, 바, 클럽, 레코드숍, 소규모 공연무대, 댄스홀, 거리축제, 야간유흥문화(nightlife)를 포괄한다.

과거에는 문화 인프라 논의가 공식 문화공간에 집중됐지만, 오늘날 문화정책은 〈비공식적인 문화 씬〉을 활성화하는 공간 마련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비공식 문화영역이 빚어내는 도시의 분위기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도시 경험에 큰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매력적인 장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며 빚어내는 창의적 에너지와 혁신적 시도들이다. 이때 비공식적인 문화영역은 도시에 문화적 경쟁력을 더하는 주요한 자원이다. 런던 시와 함께 이스트런던 조성을 지원한 ‘프루 애쉬비’(Pru Ashby, L&P)는 이곳에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몰려든 이유로 ‘낮은 임대료’와 함께, ‘자유로운(자연스러운) 교류와 혁신적 환경’을 마련해준 비공식 네트워크와 ‘소프트 인프라’(카페, 식당, 야간문화...)를 강조했다.

이 관점에서 부산 커피숍과 도시 성장의 공생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부산 커피숍에서 단순히 산업(경제)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문화 씬〉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굴, 독려할 때 부산 커피숍의 성장이 도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커피 산업정책과 문화정책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결국 문화의 활력과 도시의 성공은 ‘공생’, ‘공진화’하는 것이니까.

## • 시민 문화의 관점

그런데 커피숍이 활성화하는 <비공식적인 문화 쉼>은 또한 지역 시민들에게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문화 거점>의 측면을 생각해보자. 오늘날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발전은 ‘관 주도’, ‘기관 주도’로 계획, 설립된 문화시설만으로는 이끌어내기 어렵다.

도시문화의 역동성(Dynamism)과 다양성(Diversity)은 비공식적 문화공간들을 통해 보강될 수 있다(역동성은 새로운 생각을 수용, 실험하고, 스스로 변화하며, 서로 다른 문화주체들이나 산업집단 사이에 협력체계를 만들며 도시 자생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성은 주류 / 비주류 문화, 여러 계층의 관객과 시장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통과 현대화 사이의 균형지점을 찾는 것, 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고유의 지역성을 유지하고 부각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높이는 것, 이런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문화 공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도 비공식적 문화 공간들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 치유하거나, 세대별로 소외되는 계층들(고령층, 청소년층)의 정서적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문화정책의 현안은 각 지역에 ‘실핏줄’처럼 퍼져있어 문화적 풍경을 이루며, 주민들에게 색다른 도시 경험,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문화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원을 교육, 교통, 법률, 주택...과 같은 비문화 분야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교통+문화)도 이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커피숍은 이른바 ‘슬세권’(=근린생활) 문화시설, 문화거점의 잠재력이 있다. 이 개념은 또한 지난해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가 제안한 ‘로컬-택트’(Local-tact) 정책과 연결된다. ‘로컬-택트’는 공식 (대형)문화시설의 ‘대면’(tact) 활동이나 온라인 ‘비대면’(non-tact) 활동과 구별되는 제3의 길로서, 지역=마을로 접근하는 소규모 (대면) 문화 활동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의 카페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고전적인 카페 기능(문화예술 ‘살롱’ 전통)은 잘 알려졌지만, 오늘날 파리의 카페는 ‘마을 사랑방’의 역할뿐 아니라 토론·세미나(‘출판인 카페’, ‘철학 카페’), 미술 전시, 연극 공연(문학협회와 연계), 음악 공연, 영화 상영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세분화, 특화된 곳이 많이 있다. 여기서 카페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문화 거점으로 작동한다.

## • 정책

앞서 말한 관점에서 정책을 몇 가지 구상해봤다. 핵심은 〈커피숍과 예술인들의 결합〉에 있고, 커피숍에서 이뤄지는 ‘전시·공연·강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지원은 비용 지원과 네트워킹(인력, 작품 중계) 지원으로 나뉜다. 정책 실행은 어디까지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문화 인프라, 즉 자발·자생적 문화 인프라인 커피숍과 함께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200~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정산처리를 생략한다(행사 인증 사진으로 대체함).

## ○ 미술

- 좋은 사례로 〈모모스〉가 〈부산커피〉 포장지로 김종식 화가의 작품(〈귀환동포〉 1947)을 사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 커피숍은 부산 근현대 작가의 작품 복제본을 포장지로 활용하거나, 또는 액자로 전시할 수 있다.

: 부산 근현대 작가의 작품 복제본, 출력 제공

: 문화재단 홈페이지 샘플 게시. 커피숍이 샘플에서 선택, 신청함.

전시할 경우, 부산시 예산으로 고화질 출력, 액자 만들어줌

\* 작품 선정위원회, 디지털화(아카이빙)가 필요함

- 진품 미술작품(회화, 설치)의 대여(렌탈)도 고려할 수 있다.

\* 작가 동의와 보험 문제 협의 필요함

## ○ 영화 스틸 사진

- 부산 로케이션 영화의 경우, 로케이션 인근 커피숍에 무상 공급

\* 영화 선정위원회. 디지털화가 필요함

\* 부산영상위원회와 협업이 필요함

## ○ 독서, 인문학, 소공연

- 소규모 연극 (1인극, 2인극, 3인극, 낭독극 ...)
- 솔로·듀오·트리오 음악 연주
- 강연비용, 공연비용 제공

## • 앞으로의 과제

이제 문화정책은 시대 변화에 맞게 ‘공식 / 비공식’ 문화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함께 발전시켜 시민들의 문화적 삶과 도시의 성공을 연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 주체 간, 형식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체를 구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 부산 커피숍과 지역 예술인들의 협력 정책은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숍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다듬어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문화정책은 혁신과 실험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에게 ‘공식 / 비공식’ 문화 영역 간의 조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파트너십,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세대별 특징을 가진 주체들의 공동체, 지역성과 국제성의 균형, 전통과 현대성 간의 조화...와 같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 과제들은 이질적인 분야와 조직이 융·복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를 요구한다.

일단 부산 커피숍과 지역 예술인들의 협력에서 출발해,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논의하면 좋겠다. 가령 사적으로 운영되는 극장이나 공연을 공공기금(또는 공공시설·건물)이 지원하는 ‘혼합형 문화경제’ 모델을 논의 주제로 고려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문화공간’은 이미, 그 자체로 공공성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커피숍뿐 아니라, 민간 공연장, 소극장을 비롯해 〈상업 문화공간 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발표2]****‘부산의 작은 역사: 커피’**

김만석 (독립 연구자)

**1. 재생된 로컬이 도착한 곳**

군산은 부산과 닮았다. 항구도시라서 그런 게 아니다. 역사적 자산을 ‘밀천’ 삼아 도시의 활력과 재생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금강과 서해안을 끼고 거대한 ‘평야’와 그에 견줄 정도의 ‘폐허’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군산이니, 지정학적 조건도 제법 유사하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지만, 이 역사를 ‘낭만화’함으로써 동시대의 문제와 갈등적 역학을 은폐하고 엄폐하는 도시 필터링의 단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도 그러하다. 예컨대, 군산의 영화동은 성매매집결지가 골목을 따라 늘어선 곳이었지만, 이곳이 ‘재생’될 때는 이곳의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삭제되어 있고, 그저 인근 점포에 달려 있는 네온사인인 ‘느낌’과 오랜 거주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해당 장소의 내력을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영화동의 이력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그곳을 ‘고착화’된 장소나 공간처럼 ‘감각’되게 만든다. 달리 말해, 도시의 역사를 관광의 대상으로 낭만화하면서, 다채로운 역사의 결을 사장시켜 특권적인 이미지에 도시(local)를 위계적으로 연결시킬 때, 궁극적으로 군산을 ‘내부 식민지’로 삼아 낭만만을 채취, 수탈하는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없지 않다. 낭만에 위배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할 따름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정동적 테크놀로지가 바로 음식이나 음식점 그리고 이를 데이터화하고 평가체제로 조직해 놓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다(물론 이 시스템은 음식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을 터전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해 이루어지는 별점 평가(혹은 테리)는 ‘친절함’을 기준으로 삼거나 ‘인심’의 강도(intense)와 맛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불명확한 ‘가치’에 따라 서열화하기 일쑤고 표준과 취향을 위계화하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가게들은 ‘부재’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마치 군산의 영화동처럼 말이다. GIS에 등록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못할 때,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각 좌표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GIS에서는 이른 바 ‘덧글’과 ‘평가’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당 좌표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즉, GIS는 사실 상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분위기와 느낌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정동적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로컬음식(점)을 부정적 ‘땀’이나 ‘짬’로 재현하거나 이른 바 지역의 ‘토산품’이나 ‘상징’ 조형물에 대한 비하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로컬에 근거한 식재료로 상징 이미지나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거나 공적자금의 낭비로 치부하는 조롱은 지자체의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



다. 대체로 로컬 조형물은 해당 지역의 주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지역민들이 조형물로 만들어진 농수산물인 아니라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기반이나 삶의 기반이 ‘하나’로 통합되어버린 지역에서의 상징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사실 상 슬픈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브랜드의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군산의 경우, ‘떡방아와 친구들’과 같은 캐릭터를 통해 로컬 브랜딩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제작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캐릭터와 로컬 사이의 연관성이 없어 ‘군산’의 자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캐릭터를 고안했던 군산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가 인문학창고 정담(구 군산세관 창고 건물)에서 판매했던 커피가 ‘고종’과 커피를 연결해 만든 ‘황제 커피’였다.

## 2. 부산Fusan에 도착한 커피를 위한 우회로 1

1900년 이전부터 조선에서 사전들이 간행된다. 대표적으로 《불한사전》(1869), 《한불증년》(1880)처럼 불어와 체계화되지 않은 조선어 사이의 언어적 번역 그리고 문화적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연해주로 이주한 함경도 출신자의 말을 러시아로 기록하고 번역했던 《로한증년》(1874)과 《시편 노한소사전》(1904) 그리고 《영한증년》(1890)과 이를 증보한 《한영증년》(1897 이후 1911년 증보) 등 영어로 기록, 번역된 사전이 그러하다. 조선어만으로 이루어진 사전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어(혹은 한어)는 각 언어나 문법적 기준을 경유해서 제시되지만, 경우에 따라 조선어에 대한 문법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일본인, 특히 역관의 조선어 학습서로 만들어져, 1703년 이후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증보가 이루어진 《교린수지》도 사실 일종의 사전이기도 하다.

이 사전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언어학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당대 조선 사회의 풍속이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가운데 명태와 명란에 관한 어휘들만을 따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명퉁 MYENG-HTÂI 明鮐 esp. de poisson, le même que le 북어 Pouk-e.

—《한불증년》(1880) 236쪽

명란 MYENG-RAN, -I. 明卵. œufs d'un certain poisson, du 북어 Pouk-E ou 명퉁 Myeng-htâi.

—《한불증년》(1880) 236쪽

동퉁 TONG-HTÂI. 凍# esp. de poisson de mer, le même que le 북어 Pouk-e, celui qui se pêche pendant l'hiver et est gelé pour être conservé.

—《한불증년》(1880) 492쪽

북어, 北魚, A kind of sea fish without scale.

—《한영증편》(1890) 110쪽

명티 s. 明胎 (복을)(명티) The pollack. Merlangus. See 북어.

—《한영증편》(1897) 352쪽

명란 s. 明卵 (복을)(알) Pollack spawn.

—《한영증편》(1897) 323쪽

명유 s. 明油 (복을)(기름) Pollack oil—used for varnish. See 동유.

—《한영증편》(1897) 351쪽

춘티 s. 春胎 (봄)(명티) The pollack—caught in the spring. See 명티

—《한영증편》(1897) 956쪽

괘 s. A measure—ten yang. A string of twenty dried pollack etc.

—《한영증편》(1897) 975쪽

명태와 연관된 어휘는 다양하게 등재되는데, 《교린수지》에서는 명태를 서양 사전과 다르게 “明太”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명태는 북어니 함경도 명천사는 태가가 처음으로 잡아 먹어서 인하여 명태라 이름하였습네다”라고 쓰고 있다. 명태의 주요산지가 오늘날의 원산만 인근 지방이었고, 거기에서 나는 명태와 관련한 생산물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혹은 그 일대에서의 명태 어업과 다양한 제조법을 다른 지방에서 따를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 학습서이자 사전에서도 당대 널리 알려진 이 어원설을 고스란히 따라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천주교와 기독교 선교사들의 어학 선생이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이 어휘 목록에 명태와 관련된 항목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명태와 대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명태 관련된 어휘가 등재되고 증보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 사회에서 명태와 명란이 많이 섭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에서 간행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저작들에서도 명태 관련 어휘가 빠지지 않았음을 볼 때, 서양인 선교사들에게도 조선인의 명태, 명란 섭취가 포착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천주교와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조선어(한어)를 익히는 것은 포교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였다. 이른 바 한불사전이나 한영, 영한사전 모두 그 목적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어 후속 선교사들이 조선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중어 사전의 출간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부담하는 ‘번역’의 세계였고, 서로의 말이 1 : 1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기도 했다. 푸칠로가 만든 노한자전(1874)의 경우에는 함경도 이주자의 말을 근간으

로 해 사전을 출간했던 이유가 청과 러시아의 국경분쟁 이후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조선인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진출이라는 제국주의적 욕망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전 출간 전후로 이루어진 갖은 국제적 분쟁과 전쟁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번역이 단순히 선교나 해당 사회의 이해로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선교사들과 조선인들은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이 분명하고, 조선인들과의 호흡이 없으니 선교활동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시기에는 그들이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회합을 갖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천주교 선교는 목숨을 건 일이기도 했는데, 기독교는 박해로 인해 목숨을 걸지는 않았지만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과 결핵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 가운데 건강악화로 귀국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선교 현지에서 죽음을 맞이해 그곳에서 장례를 치른 분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죽음(Rev. Joseph Henry Davies, 1856~1890)으로 말미암아,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적극적인 지원 아래 안정적인 선교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부산 북병산은 데이비스를 포함해 선교활동 중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나 그의 가족들이 안장된 곳이다).

기독교 선교사 가운데 게일(James Scarta Gale, 1863~1937)은 최초의 부산 거주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기일奇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대학을 졸업하고 밴쿠버에서 1888년 11월 13일 출발해 나가사키를 거쳐 12월 12일 부산에 도착한 다음 15일 제물포에 도착해 한양으로 들어가면서 선교를 시작한다. 이후 해주, 송천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 하지만, 여의치 않아 한양으로 돌아와 언더우드와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제물포에서 히꼬마루를 타고 부산 초량에 정착한다. 1년 남짓 부산에 머물다 1892년부터 원산 지방으로 옮겨 선교활동에 전념한다. 그는 1929년 6월까지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했으며 언더우드와 더불어 편찬한 사전 외에 한불사전(1880)을 참조해 만든 한영사전(1897)을 만드는 등 귀한 자료를 많이 남긴 사람이다(그가 사전을 편찬할 때, 송천에서 만난 해주 출신 이창직(1866~1936)도 사전(=번역) 출간에 공헌한 인물이다. 그는 사실 상 번역가이기도 했다).

게일의 이동경로는 시간 순서에 따라 대략, 밴쿠버--나가사키--부산--제물포--한양--해주/송천--부산--한양--원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영사전(1897)에 ‘명태’ 관련 어휘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의 원산 체류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춘태’와 같은 어휘는 생산지에서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원산 지방에서의 선교 과정에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사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명유’와 ‘쾌’도 그러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어가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해도, 말린 것을 제외하고는 생태, 동태는 물론이고 명란젓갈도 계절음식이나 지역음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한 지역과 계절이 아니라면 당시에 다른 조선인들도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명태의 주산지였던 원산지방에서의 선교활동이 명태 관련 어휘를 더 늘려야 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엔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원산만 일대에 명태가 알을 낳기 위해 몰려 들었고 원산만 일대에서 이 시기에 나는 명태와 제조물들을 최고로 쳤다. 철도와 육로가 일제에 의해 재배치되기 이전에 명태와 그 제조물들은 육로의 경우 철령산맥을 경유해 한양으로 이동하거나

해로를 이용해 동남해안의 주요 장시로 이동했는데, 낙동강 유역의 주요 장이 섰던 동래와 구포로 또 영산강 유역의 여러 장으로도 전해졌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식문화와 대대적으로 접촉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은 한반도 명태의 분향은 ‘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거주자들은 모두 이 지역 인근에서 나는 명태와 명란, 북어를 먹었던 셈이다. 1900년으로 접어들면서 명태와 명란은 동아시아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음식이 되기 시작한다.

### 3. 부산Fusan에 도착한 커피를 위한 우회로 2

한편, 19세기 후반은 조선사회가 외부와의 접촉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조선 사회에 알맞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실천의 시기이자 위기의 시기였다. 선교사들의 사전엔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던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기록되기도 했는데, 포도주가 대표적이었다. 포도는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 ‘안성’ 지역에서 처음 재배되어 조선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처음 심을 때 포도주를 담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포도주는커녕 포도나무도 널리 경험하기는 어려웠다. 1901년이 되어서야 콩베르 신부가 머스캣 종 묘목 스무 그루가 안성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즉, 제일의 영한사전(1897)에 포도주가 등재되어 있는 것은 조선 바깥에서 제조된 술이 조선에 들어와 종교적 의례로 활용되었거나 자신들의 음용을 위해 들여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은 서구적인 것의 ‘번역’만을 기재한 것은 아니었다. ‘서학’과 ‘동학’이 등재되는 방식은 서구적인 것이 다양한 갈등 속에서도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학 西學 SYE-HAK, -I. doctrine de l'ouest, c.a.d.la religion catholique —한불사전  
서학 西 서녁 學 배홀 1. Western teaching 2. foreign doctrine. [See] 서교 —한영사전  
카톨릭에서는 “서양교리, 즉 카톨릭 종교”로 번역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1.서양의 가르침 2. 외국 교리”로 ‘서학’을 번역하고 있는데, 신유박해(1801) 이후 공식적으로 포교가 어려워진 카톨릭에서는 서학과 서교의 구분 없이 서학을 ‘카톨릭의 교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경험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의 사전에서는 서양의 지식 체계와 종교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선교활동이 교육(의료)과 포교라는 두 가지 활동으로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부산에서 기독교의 선교활동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성경반포에서 시작해 의료, 교육으로 이어졌음을 볼 때, ‘서학’은 종교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라는 뉘앙스와 연관되어 있었다.

커피도 이런 사정과 분리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청나라 연행의 과정에서 사신들이 커피 맛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고영(『카스테라와 카스텔라 사이』, 포도원, 2019)에 따르면, 청나라에서 조선의 미식가가 맛본 와인, 카스텔라 등의 다양한 식문화를 19세기 초반부터 이미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연행과 왜관은 이른 바 외국음식이 경험되는 조건이었다). 조선의 지배계층들에겐 커피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고 특히 카톨릭 선교사들로 인해 당대 일반에게도 경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카톨릭 선교사에 의하면,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할 때,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지만, 선교본부(홍콩) 측에 지속적으로 음식이나 각종 예배를

위한 물건들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속에 이미 커피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한일자	수신인	반입 요청 물품(성물, 성사 용품, 서적 일용품 및 선교자금)
· · ·		
1861. 3. 6.	리브와	(랑드르 신부와 조안노 신부 편에 보내 달라) 백포도주와 적포도주 각 50병씩 2통. 코냑 4다스, 커피 40리브르, 흑 설탕 100리브르, (돈은 필요없다. 충분하다)
1861. 9. 30.	리브와	돈은 보내지 말라. 미사용 포도주 50병짜리 2~3통, 코냑 3상자, 커피 50리브르, 설탕 50리브르
· · ·		
1863. 11. 24.	리브와	(당신이 올해 책값을 많이 올렸다. 좀 낮추도록 해 달라) 편지지 4련(rame : 500장 묶음) 커피 50 catis(paquet), 설탕 50 catis, 병마개 100개, 코냑 3다스, 초콜릿 30리브르, 질 좋은 포도주 4다스, 미사용 포도주 50병짜리 3 궤짝, 요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1,200 피아스터

(표1)조현범, 「철종 대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활동과 일상생활」, 〈교회사연구〉19집, 2002에서 재인용

베르뇌 주교가 프랑스에 있었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각종 미사용 도구와 일상용품, 음식들이 기록되어 있다. 커피는 리브르 단위(100리브르는 50kg)로 기록되거나 catis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이 물건들이 조선에 반입되는 경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청나라를 오는 역관들 편에 부탁하는 경우와 서해안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있었다. 선교는 철종대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선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여러 감시를 피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1866년 2월 하순에 일어난 병인교난으로 선교사 9명이 체포되어 참수당하고, 3명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여온 커피는 볼 수 없게 된다. 커피에 대한 요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조선 내에서 커피를 구해 음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점점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수도)	평균기온	주요생산품
土耳其 (國都)	一年平均溫度 五十七度七十分	菓 米麥 羊毛 珈琲豆 綿
墨西哥 (國都)	一年平均溫度 七十六度五分	珈琲豆 砂糖 烟草 銀
布哇 (國都)	一年平均溫度 七十八度五分	砂糖 羊毛 珈琲豆 穀類
印度 (뭍세)	一年平均溫度 八十一度二分	米麥 綿 毛絹 織物 珈琲豆 砂糖 阿片 藍

(표2)「各國氣候物産表」, 〈대조선독립협회회보〉제9호, 1897년 03월 31일 부분 인용.

‘토이기(터키), 목서가(멕시코), 포와(하와이), 인도’의 주요 생산품에 “가배두”(커피콩)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프랑스 선교사가 은밀하게 들여온 커피가 이십여 년 만에 조선에서 ‘관심’과 ‘기호’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胃의 作用을 妨害하고 精神을 濁亂케 하는 性質이 有하니 飲料에 適當치 아니하고 茶, 珈琲 等은 適當히 飲 면 良好”(강병옥, 「위생」, <태극학보> 1906. 9. 24)라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 아직 비싼 가격이었지만, 조선에서 커피가 더 이상 낯선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기사에 앞서, 외국인 접대에서는 커피가 기본으로 마련될 정도가 된다. “明日에 外國人을 接待호을터인디 料理諸具를 猝難變通이온바 本部大臣均敎를 承호와 茲에 左開仰佈호오니 照亮호오서 去趾에 借交호심을 爲要”라고 하면서 “珈琲茶鍾具臺 二十介 珈琲茶스분 二十介”를 포함해 두고 있다(1899년 05월 18일).

#### 外部所管東萊監理署宴會費를 豫算外支出請議書 第一百五十八號

本月十五日에 外部大臣署理第六十四號照會를 接準호은즉 內開에 宮內府照會內開에 接東萊監理 李明翔 報告 內開에 府電飭를 奉準호와 本月一日下午八點鐘에 與德國親王으로 約以宴會호야 備設宴需이다가 同日下午二點鐘에 自德艦으로 有書호되 言其封親王세시마귀의 訃音이 電到호야 不能赴會이다이옵기 更以三日下午八點鐘으로 約會矣러니 赴期에 德國親王及艦長以下十二人合十三人이 齊到本署호야 十一點鐘에 還艦이온바 前設宴費는 以本署交接費中으로 僅僅彌縫이옵고 後設宴費는 因無措劃호야 稅務司의게 二百元을 貸用호고 八十元은 西洋料理家의 未授價先用호고 一百五十六元二十三錢은 自署中으로 私貸以用이옵고 茲에 左開報告호오니 查照호신 後 該錢을 某樣公錢中 海關으로 措劃支出호심을 望호단等因 準此호와 該費明細書를 現已入稟호은즉 此費磨鍊을 由外部措處케 호라신 旨意를 奉有호왓기 宴接費明細書를 伴交호고 茲用佈明호오니 照亮호시고 準此措劃호심을 爲要等因이라 此를 準호와 該費明細書를 仍將原件호야 茲에 照會호오니 照亮호오서 該宴費四百三十六元二十三錢을 迅行支撥호야 以便作覆케 호심을 爲要이온바 查該所需費額이 係是臨時挪用이온즉 不可不準數劃勘이기로 別紙調書를 從호야 預備金中支出호으로 會議에 提出事.

#### 豫備金支出調書

一金四百三十六元二十三錢 東萊監理署宴會費

#### 德國親王宴接費明細書

지출내용	지출비용	지출내용	지출비용
琉璃菓子盒二個	八兩	交子四床	錢三百兩
琉璃砂糖盒一個	二兩七錢五分	料理二十人分	四百兩
琉璃水瓶二個	八兩五錢	西理酒十瓶	五十兩
珈琲茶罐一個	一兩五錢	葡萄酒十五瓶	一百五十兩
瓶錐一個	一兩二錢五分	三板酒二十瓶	三百兩
洋燭臺四坐	二十四兩	衛理水機酒三瓶	三十兩
洋燭二打半	五兩七錢五分	麥酒八打	二百兩
尾扇三十柄	九兩九錢	鈴濃水四十瓶	六兩
反照燈四坐	七兩	洋料理手巾二打	八兩五錢
洋鐵茶盤一個	一兩六錢	牛乳二桶	四兩四錢
玉洋木五十尺 卓子裸所入	二十三兩	珈琲茶二桶	三兩五錢
空石二十立	四兩六錢五分	角砂糖二匣	三兩五錢
鐵釘	五錢五分	紙拳烟一匣	十二兩
板子木運賃	七兩	葉拳烟一匣	二十兩
藁索	四錢五分	洋菓子五匣	十八兩七錢五分
負沙賃	七兩六錢	炭一俵	二兩五錢
木手三名工錢	七兩五錢	白蠟八斤	九兩二錢五分



募軍五名雇	三兩一錢	衛理水機盞三十個	二十二兩五錢
器皿二負運雇	六錢	三板酒盞三十個	五十三兩六錢
麥酒二負運雇	六錢	西理酒盞三十個	二十五兩五錢
轎軍軍留連食價	三十九兩九錢五分	麥酒盞三十個	三十七兩五錢
轎軍十二名三十里來往雇及轎子賃	五十七兩	茶碗三十介	四十五兩
交椅十二坐新備并雇賃	二百四十八兩九錢	茶匙三十介	七兩五錢
合下錢二千一百八十一兩一錢五分 作銀四百三十六元二十三錢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閔泳綺		議政府參政 李鎬俊 閣下	
光武二年八月十九日(1898. 8. 9)		奏二百五	

위 내용은 의정부찬정대신 민영기가 의정부참정 이호준에게 보낸 동래부에 방문한 독일인들의 연회에 쓴 내역서를 보내면서 요청한 비용 청구이다. 비스마르크의 죽음(1898. 7. 30)으로 8

『조선국해관세목』(1883) 수입품목

월 1일 예정되어 있었던 연회가 3일 저녁 8시에 열리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연회에서 사용된 요리와 도구, 인력에 사용된 비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행정서류이다. 이 내역에 따르면 조선의 전통 음식과 서양의 음식이 혼재되어 있고 전통 상차림과 서양식 테이블 세팅을 위한 도구가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東萊監理李明翔”(이명상은 이 해에 6월 23일에 고종으로부터 동래부윤이자 동래감리를 동시에 임명받는다)의 주재로 이루어진 연회는 독일인(위르터 花爾德)의 “금성”(나주) 광산 채굴권에 대한 독촉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에 ‘함선’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데서, 이는 단순한 사안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커피는 철도부설과 광산채굴권을 둘러싼 독일과 영국의 조선의 압박의 한 가운데서, 맛을 냈을 것이다.

『부산항경제통계요람』(1922) 수입품목 종별

## ○通商報告

○中央亞米利加咖啡耕植地景況 中央亞米利加ニ於ケル咖啡耕植地ノ景況ニ附キ  
桑港駐在帝國領事河北俊錫ヨリ去月八日附テ以テ左ノ如ク報告アリ(外發)  
中央亞米利加トハコスタリカグアテマラホンヂニラスニ加拉瓦サニサルヴ  
アドールノ五共和國ノ總稱ニシテ其總人口ハ詳ナラスト雖モ大約三百萬ヲ昇  
降スヘシ其面積十八萬六千四百四十英方里内地ハ概ネ高原平野ニシテ氣候溫  
和能ク人ノ健康ニ適シ(海岸ハ氣候炎熱ナリ)地味亦豐饒ナリ政治ハ共和ト謂  
フト雖モ其實武斷政治ニシテ能ク社會ノ秩序安寧及財産ヲ保護スルニ足ル而  
シテ右共和國ハ天然ノ財源ニ富ミ且ツ其地理最モ能ク外國貿易ニ適ス當時開  
鑿中ニ係ル太平洋兩洋ヲ貫通スル一大運河ハコスタリカトニ加拉瓦トノ國  
境ニ在リ(世之ヲ尼加拉瓦運河ト稱ス)右ハ北米合衆國政府ノ内助ニ依リ北米  
商社ニ於テ起セシ事業ナリ右運河ニシテ竣功ヲ告グルニ至ラハ該共和國諸國ハ  
勿論世界各國ノ通商上ニ著シキ變動ヲ來スヘシトハ世人ノ專ラ稱道スル所ナ  
リ

今該共和國ニ於テ最モ必要ヲ感スルハ信任スヘキ勞働者ヲ得ルニアリ其故ハ  
元來該國ニ住スル人民ハ西班牙人種竝ニ土人ニシテ一般ニ懶怠放逸勞働ヲ好  
マズ貧賤ニ安シテ毫モ前途ノ幸福ヲ慮ラサルニ因リ金錢モ其効力ヲ逞スルコ  
トヲ得サレハナリ是ヲ以テ米英獨等ノ資本家該國ニ於テ屢々事業ヲ企圖スト  
雖モ之カタメ毎ニ其伸暢ヲ妨ケラレ空シク用途ニ供シ得ヘキ巨萬ノ資本ヲ懷  
キ眼前ニ横ハル所ノ天賦ノ富源ヲ開發スルコト能ハサルハ右資本家ノ大ニ遺  
憾トスル所ナリ故ニ時ニ或ハ歐洲ヨリ勞働者ヲ誘導センコトヲ試ル者ナキニ  
アラスト雖モ是亦其資金不廉等ノタメ一モ其目的ヲ達セシモノナシ然ルニ其  
需要ニ應スヘキ勞働者ハ支那人ニ至極適當セリト雖モ支那人ハ種々ノ事情ア  
リテ大ニ該國人ノ嫌惡スル所ナルヲ以テ之ヲ誘導スルモ其事業上却テ不利ヲ  
招カンコトヲ恐レテ今ニ其誘導ヲ試ルニ至ラス是ヲ以テ一日或ル洋商來リテ  
曰ク中央亞米利加諸國ハ日本企業家ノ運動ヲ爲スニ最モ適切ナル機會ヲ與フル  
モノニシテ此機會タルヤ決シテ他國人ノ得ルコト能ハサル所ナリ何トナレ  
ハ日本人ハ勞力廉價ニシテ且ツ該國人ニ於テ之ヲ嫌惡セサルヲ以テ其必用ナル  
資本ト勞働者トヲ携帶シテ容易ニ該國ノ富源ヲ開發スル地ヲ得ルノ便アレハ  
ナリ而シテ該國ニ於テハ外國人モ廉價ヲ以テ廣大ナル田地ヲ購入シ得ヘシ且  
ツ其財産モ政府ノ保護ニ依リ安穩ニ之ヲ所有セラハナリト

『제국일본관보』(1890) 외무성의 중앙아메리카 커피 보고



광고, &lt;한성신문&gt; 1901. 6. 20.

**[종합토론1]**

**‘!!!!스페셜티커피 산업의 플레이어로의 관점  
커피와 카페 , 문화 예술의 동반 성장 ’**

전주연(모모스커피 이사,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로컬 커피 산업 및 스페셜티커피에 대한 이해와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 필요**

- 일반 커머셜 커피와 스페셜티커피의 차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가치체인)
- 전 세계 커피 생산 비중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고품질 커피 생산국으로 자리 매김한 코스타리카
- 스페셜티커피에 대한 문화 예술적 해석 필요
- 협력 및 교류 : 부산도서관 - 월드바리스타챔피언 (대표 도서관 홍보 대사로서 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 도서관 연계 스페셜티커피 특강)
- 부산 문화 재단과 로컬 스페셜티커피 기업 연계 (ESC 사업 등 )

**산업, 경제 성장이 아닌 문화, 관광으로서 스페셜티커피와 공간의 성장. 그로 인한 확장성.**

- 박물관과는 달리 열린마음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방문하게 만들며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커피, 카페
- 해운대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작게라도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지역작가, 지역의 좋은 이야기, 지역을 넘은 한국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매개 역할.
-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협업, 전시  
예) 모모스커피 영도 공간 유리작가 이재경 , 가구 디자인 문승지(팀바이럴스) 작가 등  
예) 패키지디자인  
예) 해녀의 부엌 , 각 산업에 대한 이해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예술 접목
- 카페 공간에서의 공연, 전시를 넘어 시,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커피, 식음료 관련 전시 오픈

**부산의 커피, 카페 문화는 무엇인가? 공간의 의미를 넘어 브랜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이 아닌 브랜드로서의 성장을 위한 문화 예술적 해석 (커피 뿐 만이 아닌 요식업 전체)

## [종합토론2]

## 커피와 문화예술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 문화기획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두 영역의 접합

작성 : 락(로컬콘텐츠기획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고민의 지점들(2020, 2021)
    - 모모스커피와 전주연 바리스타(2019 월드 챔피언)를 옆에서 지켜본 소감
    - 실행과 결과물 : 금정북페스티벌, 부산 블렌드(김종식 화백, 1947 귀환동포 연계), 부산도서관 홍보대사, 한 아세안 강의 등
    - 사람들이 모이는 곳 / 전주연: 서울(연남장, 트래바리 등등), 인스타 팔로우 4.6만, 셀럽
- 부산 커피, 스페셜티 커피, 커피 공간들

- 커피와 문화예술은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 커피, 부산커피 브랜드 : 지난 10년간 성장,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지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상황
    - 문화예술이 커피를 바라보는 지점 : ???? / 커피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스페셜티 커피와 커피벨트, 공정 생태계 등
    - 모모스커피, 블랙업커피 같은 로컬 기업에 대한 성과 스토리와 이해가 필요
- 서로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지에 고민을 시작한 상황, 혹은 매개의 필요성

- 이지훈 박사의 발제에서의 착안점
  - <비공식적인 문화 씬>(informal cultural scenes) :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논의 / 사적 영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 필요(무리하게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 필요는 없음, ESG 경영 사례의 예)
  - 세대별로 소외되는 계층들(고령층, 청소년층)의 정서적 재건에 도움

- 김만석 평론가의 발제에서의 착안점

- 문화예술과 커피의 접합점은 과연 어디인가
  - 장기적 플랜과 단기적 액션이 필요

장기적 플랜의 영역	단기적 액션의 영역
<b>1. 커피 벨트, 커피 산지에 대한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지널리티의 공간</li> <li>- 커피→교류(레지던스)→국가간 이해</li> <li>※아이러니의 공간 :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li> </ul>	<b>1. 물량장을 활용한 커피 축제 발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에도 진행중이지만 커피 중심으로 진행</li> <li>- 지역 작가들 연계 작업</li> <li>- 바자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li> </ul>
<b>2. 커피와 문화예술의 연계를 통한 브랜드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연 바리스타 : 축제 홍보대상 등</li> <li>- 부산의 문화예술기관과 로컬 기업(브랜드) 연계</li> </ul>	<b>2. 지역 커피 공간 + 문화예술 연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숍을 노출할 때 함께 진행</li> <li>- 기획사업 형태 : 프로그램 매칭 등</li> </ul>



[종합토론3]

‘카페는 생활문화시설이자, 문화관광의 자원이다’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Coffee,  
Cafe,  
Culture District

카페는 생활문화시설이자,  
문화관광의 자원이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조정윤

# 포르토, 카페 마제스틱



# 에딘버러, 엘리펀트 하우스



# 파리 몽파르나스, 카페 셀렉트



## #런던 노팅힐, 노팅힐 북숍



## #요코하마, 아카렌가 소코



## #토론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Cafe, Bar,  
Resturarnrnt  
생활문화시설  
지정을 위한  
정책 공론화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4]

‘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과 지역사회보호전략에 대한 상상’

윤성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과  
지역사회보호전략에  
대한 상상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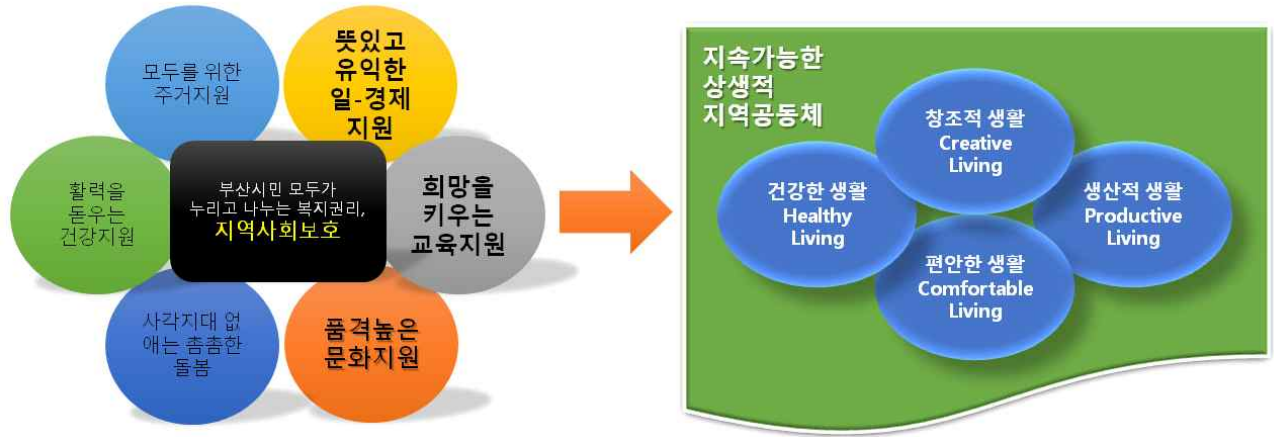
대질문.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사는가?"

"평화로운 마을에서 좋은 이웃과 함께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보살핌(돌봄)을 나누고  
건강을 유지하여  
튼튼한 생활의 토대 위에서  
가치로운 일을 하며  
질 높은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는  
부산 시민의 삶(생활)"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지역사회보호전략의 비전과 사명 : 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의 기능적 가능성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정의들 definitions

### • 지역사회보호(지역사회통합돌봄)

-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사회공동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거주민을 보호한다.
  -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함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소셜믹스) 서로를 돌보아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킴.

### • 지역사회

- 근린지역사회를 이룸. 근린지역사회는 그 속에 속한 구성원이 인지하고 심리적인 소속감을 느끼는 물리적, 지리적, 관계적, 심리적 공간을 말함.
- 1차적 공간(space system 1)은 물리적, 지리적 공간
- 2차적 공간(space system 2)은 관계적, 심리적 공간
- 여기서, 1차와 2차로 구분하나 중요성을 서열적으로 따지지 않음.

### • 지역사회공동체

- 지역사회구성원이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와 구조를 가지고 모인 집합체

### • 소셜믹스(Social-Mix)

- 근린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계층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 사회적 취약계층

- 사회구조적 혹은 개인적 원인으로 인해 기본적 욕구가 결핍하여 파생한 여러 생활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사람들.

### • 거주민

-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
  - 거주시설 내 생활인 등등 포함
  - 연결 상태를 고려하지 않음.
  - 향후 자연 생태계의 모든 존재로 확대

### • 보호

- 기본 욕구 충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충족상태로 변화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지역사회보호전략이 추구하는 6 변화와 커피숍의 기능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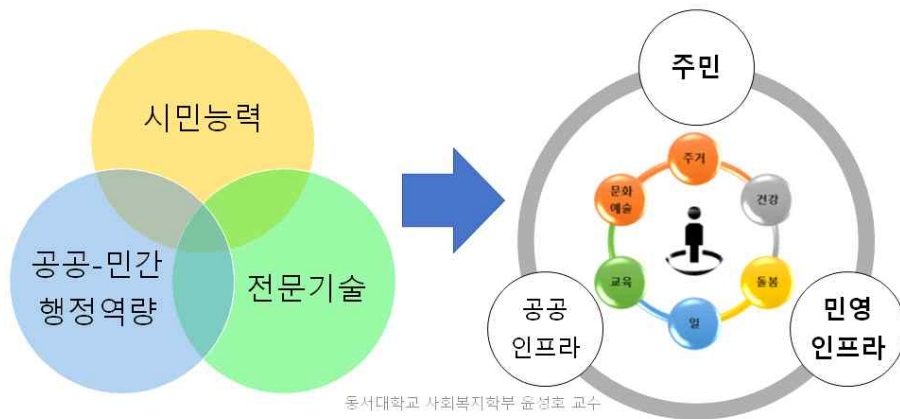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변화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지역사회보호 전략의 성격 제언 1

- 시민의 온전한 삶을 위해 시민능력과 전문적 기술, 공공-민간행 정역량을 혼합하는 기능적 민주주의 사회 구성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지역사회보호전략의 성격 제언 2

-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사회의 질(품격) 제고
  - 사회적 인프라
    - 경성적 사회인프라 hard social-infrastructure
      - 도시 공간에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 연성적 사회인프라 soft social-infrastructure
      - 지역사회에 시민 간의 우애, 협력, 호혜, 상생 관계를 만들기 위한 관계 구조
- 사회의 질(품격)은 시민의 삶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사회의 질(품격)을 높여야 함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지역사회보호전략의 성격 제언 3

- 소셜믹스 공간(Social Mix Space)으로서 지역사회 구성
  - 모든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사회로 재구성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지역사회
  - 느슨하고 자유로우며 서로 살피는 공간
  -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즐기고 어우러지는 공간
- 지역의 배제성을 저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지역사회보호전략의 성격 제언 4

- 지역단위를 토대로 다양성과 합리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모델 도출 필요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지역사회보호전략의 성격 제언 5

- 인간의 욕구-권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변화전략
  - 사업대상, 참여자, 이해관계자 모두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가 있는 존재인을 수용
  - 인간의 기본 욕구-권리로부터 상생하는 지속성을 실현하는 전략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전략의 기초. 인간의 욕구 구분

- 위계적 욕구
  - 생리 → 안전 → 소속과 애정 → 존중 → 자기실현
- 생활필수품 욕구
  - {소득, 소비, 자산, 건강, 교육, 일, 사회관계, 정치, 문화영위, 환경}
- 존재론적 욕구
  - 신체유지 및 발달 – 심리정서 – 지적계발 – 사회관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전략의 기초. 인간의 기본욕구와 기본권리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은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커피숍과 지역사회복지

- 적어도 부산의 커피숍은 ESG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 “비공식적인 문화 쉼” : 다종교류의 장의 가능성
- 예술생활과 생활정치의 거점의 가능성
-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의 가능성
- “지극히 사적 영역이 보장된 공적 공간”으로서 커피숍
-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익에 기여하는 커피숍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참고자료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커뮤니티 카페 "소네"



- 출처: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방안" 보고서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커뮤니티 카페 “소네”



커뮤니티 카페 “소네”(자원카페 운영)

- 출처: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방안” 보고서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커뮤니티 카페 “소네”



상담창구와 커뮤니티 공간

- 출처: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방안” 보고서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예시)

영역	범주	지표
지역성	원주민지원(3)	원주민의 거주성 확보, 원주민 중심의 계획, 원주민 의견 청취
	역사문화화성(12)	역사적 건축물 및 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 온라인을 통한 역사 문화 홍보, 전통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및 설계, 전통 가로 및 광장의 재활성화, 문화재 계승과 전수, 역사문화 네트워크 구축, 문화재를 활용한 단지 계획,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박물관 전시관 건립, 주거지 전체를 역사문화 보존 마을로 지정 및 관리
	지역특성반영(7)	지역 정체성 및 이미지 표현,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부공간 구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 기존 근린지구 재생, 지역 매력 반영, 가로 체계로서 골목길 유지
공동체성	주민참여(5)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커뮤니티 조직 구축, 주민행사 참여 및 개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주민참여 디자인 및 설계
	사회통합(3)	다양한 계층의 통합, 계층간 세대간 교류 여건 제공, 다양한 계층의 참여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9)	커뮤니티 시설과 보행로 연계 배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커뮤니티 시설의 외부 공유, 다양한 커뮤니티 종류 및 비율, 주민참여공간, 커뮤니티 시설 이용 편의성, 공원 및 광장의 설치, 커뮤니티 시설의 접근성, 커뮤니티 시설의 인터넷제공
	커뮤니티 활동 및 프로그램(2)	커뮤니티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지역 문화 및 프로그램 확충
유기체성	고용(5)	커뮤니티 내 고용 기회 제공, 직업 및 교육 프로그램, 빈곤과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실업률, 문화재 가치 및 지식관리인으로서 노인계층 활용 및 고용
	자족성(5)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개발 유보지 확보, 마스터 플랜에 기초한 단계적 개발, 용도의 다양성, 복합개발
	안전 및 편의성(9)	범죄예방 디자인, 지하주차장 안전확보, 보행 안전확보, CCTV설치, 범죄율, 차량 및 외부인 통제, 외부생활소음, 친환경 주차시스템 대중 교통의 접근성
	기반시설 및 서비스(6)	주민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 의사수, 교육달성 수준, 복지예산 비율, 사회복지시설비율
	주거실태	다양한 주택 유형,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 주택건설용지 혼합, 이주율, 주택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절 주거 공급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감사합니다.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MEMO]**